

19세기 후반 제주 大靜郡 지역 군병의 직역 실태*

—戶籍中草와 『大靜郡軍兵都案』의 비교연구—

임승희**

〈차 례〉

1. 머리말
2. 『대정군군병도안』의 군제 편성
3. 호적중초와 『대정군군병도안』의 군병 직역 실태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19세기를 전후한 제주지역 지방군의 개편에 따른 편성과 그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1870년 『대정군군병도안』과 각 마을별 『호적중초』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대정지역에 편성된 군병들의 직역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 편제의 한 단면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19세기에 작성된 『군병도안』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방의 주요 병종인 마대, 속오군, 아병, 성정군, 군수수술 등의 편제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의 군액은 총 1,900명에 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제주도 대정지역에 남아 있는 각 마을별 호적중초와 1870년 『대정군군병도안』을 비교하여 『군병도안』에 기재된 군병들이 각 마을별 호적중초에는 어떠한 직역으로 기재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군적에 기재된 1,900명의 군병 중 분석대상으로 삼은 대정현 12개 마을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군병은 총 970명이었고, 이 가운데에서도 12개 각 마을별 호적중초에서 그들 군병의 직역이 확인된 수는 598명으로 약 62%에 해당하였다.

* 이 논문은 2016년 제주대학교 혁신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임. 이 글은 필자의 2010년 제주대학교 일반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의 편제와 실태』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이들은 가솔, 천총 등과 같은 군관 직역은 물론이고 유학, 유향별감 등 직역을 지닌, 신분 상으로는 상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군병도안』에 각 병종별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이 신분적 차등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에서 노비에 이르는 제주지역의 사람들이 당시 군역을 지니고 각 군에 고르게 편제되어 제주지역 지방군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대정군군병도안, 호적중초, 성정군, 속오군, 마대, 직역, 군병

1. 머리말

16~17세기 걸쳐 일어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커다란 전쟁이 조선에 미친 충격은 대단히 큰 것이었고 당시 조선 사회의 각 부문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후기의 군사제도는 이전의 군사제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新兵法을 도입하거나 무기를 개발하여 새로운 군사제도의 확립을 꾀하였다. 또한 군사조직과 사회 구성 문제에 직결되는 軍役制度을 재정비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조선후기 신분제 사회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 전란을 겪은 이후 중앙에는 五軍營과 訓練都監을 설치하여 방위체제를 이루었고 지방의 경우에도 東伍軍의 편성을 계기로 여러 병종의 군대가 설치되었다.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步兵인 東伍軍 외에도 騎兵인 馬隊, 銃手兵으로서 牙兵과 別牙兵 뿐만 아니라, 해안 방어의 요충지에는 防軍이 있었고, 각 읍성에는 城丁軍, 留直軍이 배속되어 있었다.¹⁾ 제주는 섬인데다 일본과 중국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늘 주변국의 침입에 대비해야 했고, 조선후기 당시 표류선과 이양선의 출몰이 많아 지역 방어에 힘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라도관찰사로부터 군현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상당부분을 위임받은 제주목사가 대정·정의현을 총괄하면

1) 김상욱,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 - 牙兵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273쪽.

서 통치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 군사면에 있어서도 제주목사로 하여금 防禦使兼兵馬水軍節制使를 겸하게 하여 節制都尉인 대정·정의현감을 지휘 감독하며 제주지역 전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방어체제로 구축하였다.²⁾ 즉, 朝廷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제주지역이 국방상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이러한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전라도관찰사가 가지고 있던 군현에 대한 통치행정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하였고, 제주목사로 하여금 이러한 외적에 대한 대비 또는 천재지변 등의 처리가 시급한 사안들을 처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섬이어서 방어할 곳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협소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농업 생산력이 낮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는 호남 원병이 파견되어 방어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 또한 임진왜란 이후에 지원군제가 폐지되어 제주지역 방어는 대부분 제주도민이 전담하게 되었다. 정조 17년(1793) 제주지역의 병력은 정규군과 잡색군을 합하여 총 10,080명에 이르고 있는데,³⁾ 당시 제주지역 남자인구 27,853명의 약 36%에 해당할 정도로 군역의무자인 16~60세의 양인은 반 이상이 실제로 군역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

이처럼 조선후기 제주지역 방어를 위한 군정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사항이었으나, 당시 제주민들은 군사적·경제적인 압박으로 도망가거나 기근으로 인해 병이 들고 유랑 걸식하는 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軍丁을 확보하는데 많은 폐단이 있었다. 그러나 군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1847년 제주 군제 개혁 이후 漏丁의 색출을 통해 보다 많은 군역이 증대되는 한편 마대와 속오군의 증편되는 등 군병 편제의 새로운 개편을 가져왔다.

조선시대 군사제도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쟁 직후 정치·경제·군사 등 각 부문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수도를 방어하는 중앙군과 이를 뒷받

2) 『朝鮮時代 濟州島の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1991, 47~49쪽.

3)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제주목 군역조, 대정·정의현 군역조 참조.

4) 부만근, 『제주지방행정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139~140쪽.

침하는 존재로서의 지방군의 의미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군제사는 주로 중앙의 주요 군영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지방군 체제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지방사의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조선후기 지방군의 근간이었던 東伍軍과 營將制를 비롯하여 이 시기, 밀접한 관계에 있던 軍役制度의 변화 양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조선시대 군사제도와 관련한 연구 상황을 살펴보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전기와 조선후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이 두 시기에 해당하는 군제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⁵⁾ 또한 임진왜란 이후, 중앙의 주요 군영과 지방의 속오군과 영장제도라는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군사제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지방군제의 편성 및 조련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명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⁶⁾ 지방에 속오군을 비롯한 여러 병종들의 구체적인 편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軍案을 분석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⁷⁾ 이 밖에 지방군제의 편제 구조와 지역별 방어체계의 변천 과정, 병종의 설치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⁸⁾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군제 관련 연구사례로는 김상옥⁹⁾ 및 김우철¹⁰⁾, 허원

5)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육군본부, 1968;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육군본부, 1976; 김홍, 『韓國의 軍制史』, 학연문화사, 2001.

6)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2; 서태원, 『朝鮮後期 地方軍制研究－營將制를 중심으로－』, 해안, 1999;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1.

7) 이현수, 「朝鮮末期の 軍籍－陸軍 博物館 所藏 軍籍文書の 分析－」, 『학예지』 3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3.; 정구복, 「1596年 平安道 鎭管官兵編伍冊」, 『고문서연구』 제5권, 한국고문서학회, 1994; 김우철, 「成立期 東伍軍의 編成 實態－《鎭管官兵編伍冊》과 《鎭管官兵容貌冊》의 분석－」, 『한국사연구』 105집, 한국사연구회, 1999; 서태원, 「1880년 『善騎隊軍案』의 기재 양식과 내용 분석」, 『한국문화』 7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김경옥, 「1831년 『군정성책(軍丁成冊)』을 통해 본 전라좌수영의 군정과 군관－순천부 사례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5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6.

8) 서태원, 「朝鮮後期 地方軍 運用과 營將制」, 『동서사학』 제6·7합집, 동서사학회, 2000; 김우철, 「조선후기 江原道 地方軍制의 변천」, 『조선시대사학보』 24호, 조선시대사학회, 2003; 김순옥, 「18, 19세기 江原道の 地方軍 편제」,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순남, 「16세기 조선 지방군제의 동요－牙兵의 형성 배경－」, 『조선시대사학보』 73호, 조선시대사학회, 2015.

9) 김상옥,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牙兵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김상옥,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10) 김우철, 「17세기 후반 濟州 東伍軍의 編成 實態－《濟州東伍軍籍簿》의 분석－」, 『한국사연구』 132호, 한국사연구회, 2006.

영¹¹⁾의 연구가 있다. 먼저 김상옥은 제주지방 군사제도에 관한 문헌기록을 토대로 조선후기 제주 지방 군대의 편성과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사료적 접근을 통해 제주지방의 주요 병종이었던 속오군과 마대, 아병 등이 설치된 시기를 유추하는 한편, 각 병종에 소속된 군관들의 職任을 분석하여 제시해주고 있으나 각 병종에 편제된 군병들의 직역 등 신분 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김우철은 제주지역 속오군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濟州東伍軍籍簿』(이하 군적부) 자료를 제시하여 17세기 후반 지방에서의 속오군 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강화·정비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군적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속오군 편성의 특징과 편제된 속오군의 신분 및 직역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군제사를 연구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여겨지나, 당시의 군적과 비교분석할 만한 호적중초 등과 같은 자료의 不在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불어 주목할 만한 연구 가운데 허원영은 호적중초에 등재된 元戶의 성격, 특히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大靜郡軍兵都案』의 군병 중 덕수리, 사계리, 하모리, 하원리 총 4개 마을의 호적중초에 거주하는 군병들이 병종과 직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추적한 바 있다. 다만 4개 동리에 국한되어 비교·분석이 이루어진 까닭에 당시 大靜郡 지역에 남아 있는 12개 마을 호적중초와 『대정군군병도안』을 교차 분석하여 전체 군병을 대상으로 직역 실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제주지역의 읍성 및 진성, 봉수 및 연대와 같은 관방체계와 관련한 연구¹²⁾가 있다.

현재까지 검토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제주에 남아있는 19세기 후반 『대정군군병도안』 자료와 이 시기 각 마을별 호적중초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당시 지방군의 편제 양상과 편제된 군병의 직역 기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제주지역 지방군의 실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할 군적자료로서 1870년에 작성된 『대정군군병도안』

11) 허원영, 『19세기 제주도의 호구와 부세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12)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읍성, 진성과 봉수, 연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최형국, 『조선초기 軍事 戰術 체계와 제주 戰馬』, 『군사』 9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신효승, 『조선후기 제주도의 관방체계』, 『역사와 실학』 59호, 역사실학회, 2016.

과 호적중초자료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19세기 급격하게 변화하는 조선 사회 속에서 ‘제주’라는 특정지역 지방군에 관한 제반 연구를 통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적인 역사적 특수성을 인식하는 한편, 편제된 군병들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당시 지방의 군사적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제주 지방군 편제의 한 단면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2. 『대정군군병도안』의 군제 편성

1) 『대정군군병도안』의 체제와 특징

본고의 주요 분석 대상인 『대정군군병도안』(이하 군병도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9호(2009년 7월 24일)로 지정되어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성책고문서이다. 都案은 각종 군병의 개인적인 신상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조사하여 정리한 軍案으로, 우리에게는 軍籍이란 명칭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군적 자료¹³⁾는 일반적인 연대기 자료에서는 좀처럼 확인하기 어려운, 작성되어진 시기의 군병들의 신원 기록을 통해 당시 군제상을 비롯하여 국가가 군역부과의 대상 및 내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군적 작성은 원칙적으로 6년마다 작성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해당 節度使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으며 제주지역의 경우는 節制使 즉, 제주목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다.¹⁴⁾ 『군병도안』¹⁵⁾은 1책 65장으로 이루어진 필

13) 조선시대 군적 자료로는 선조 29년(1596) 평안도지방의 『鎭管官兵編伍冊』과 『鎭管官兵容貌冊』, 숙종 11년(1685)을 전후한 시기의 제주지방의 『濟州東伍軍籍簿』, 정조 23년(1799) 경상도 하동지방의 『河東府東伍軍兵戊午式改都案』, 순조 31년(1831) 전라좌수영박물관 소장 『軍丁成冊』, 고종 17년(1880) 武衛所에 소속되었던 중앙군 군안인 『善騎隊軍案』, 숙종대로 추정되는 토지주택박물관 소장의 충청도의 『東伍軍籍』 등이 있다.

14) 『경국대전(經國大典)』권 4, 兵典 成籍條.

15) 『군병도안』 영인본이 2001년과 2011년에 발행되었다. 본고는 다음의 2책을 교차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제주시·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濟州東伍軍籍簿』, 2001;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유형문화재 역해) 향토문화교육자료집』, 2011.

사본으로 규격은 가로 26.5cm×세로 35.0cm이다. 군병도안 앞 표지 전면에는 ‘同治九年正月 日軍兵都案 / 己巳十二月十八日 到付 / 大靜郡’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후면에는 ‘行郡守成’이라 하여 바로 옆에 ‘使’라 쓰고 手決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병도안』은 동치 9년 즉, 고종 7년(1870) 正月을 기준하여 그 전 해인 고종 6년(1869) 12월에 작성하여 당시 대정군수였던 成喬修가 대정군 군병의 전체적인 명단을 작성하여 제주목사에 올린 것이었다.¹⁶⁾ 『군병도안』에는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주요 兵種이었던 마대, 속오군 등에 대한 편제 내용이 각 직임, 특기, 직역, 성명, 나이, 父의 성명, 거주지명 순으로 한 면당 16명의 인원을 기재해 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군병도안』의 군병 편제

(단위: 명)

병종	성정군	마대	속오	군수수술	차귀진 방군	모슬진 방군	봉·연군	교직생	합계
군액	337	262	655	118	128	116	218	66	1900

『군병도안』에 확인된 군액은 총 1,900명에 달하며 본 논문에서는 군병 가운데 인원의 연령이나 직역 등의 여러 정보가 하나라도 확인이 되는 경우는 모두 포함시켰다. 『군병도안』의 편제는 대정군의 읍성을 지키기 위하여 성곽 주위를 수비하던 城丁軍을 비롯하여, 다음으로 左馬隊 및 右馬隊, 東伍軍, 郡守隨率, 遮歸鎭·摹瑟鎭 防軍 및 把守, 烽·煙軍 및 把守, 校直生の 순이며, 『군병도안』의 기재양식에 따른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각 편제된 군병이 지닌 무예의 특기와 직역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특기의 종류로는 射·還刀·杖·槍 등이 존재하며, 『군병도안』 상에 군병의 직역은 校生 또는 業武로 기재되어 있다.

16) 김동진, 「『大靜郡軍兵都案』解題」 『濟州東伍軍籍簿』, 제주시·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1, 208쪽.

〈표 2〉 군병도안에 등재된 군병의 특기와 직역 분포¹⁷⁾

(단위: 명)

편제	특기					직역			합계
	사	환도	장	창	미기제	교생	업무	미기제	
성 정 군	83	214	25	8	7	251	86	0	337
마 대	206	54	0	0	2	0	206	56	262
속 오 군	3	8	0	0	644	0	3	652	655
군수수술	18	86	0	0	14	0	18	100	118
방 군	5	123	0	0	116	0	4	240	244
봉·연군	121	35	0	0	62	0	121	97	218
교 직 생	0	0	0	0	66	26	0	40	66
합 계	436	520	25	8	911	277	438	1,185	1,900

〈표 2〉를 통해 군병들의 각 병종별 편제에 있어 그 직역과 특기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마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의 특기를 지닌 군병이 206명으로 다른 특기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환도’¹⁸⁾의 특기를 지닌 군병은 56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마대에 편제된 군병들의 직역은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방군과 군수수술의 경우 ‘환도’를 특기로 하는 군병과 직역이 기재되지 않은 군병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속오군과 교직생의 경우는 특기와 직역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생’의 직역을 지닌 군병들은 모두 성정군과 교직생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정군의 경우 비록 그 수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특기와 직역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성정군에 편제된 ‘업무’와 ‘교생’ 직역을 지닌 자들은 대부분 ‘사’ 또는 ‘환도’의 특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신분적으로 양반 혹은 중인층에 해당하는 자들

17) 해당 표는 허원영, 『19세기 제주도의 호구와 부세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141쪽을 참조하여 재작성하였다.

18) 조선시대 도검류의 대표는 환도(還刀)였는데 서울에서 제조된 환도가 양반 귀족들의 의장용이었다면, 지방에서 제조된 환도는 병사들의 개인 휴대용 무기였다. 즉, 각 병사들이 휴대하는 기본적인 주전투무기 중의 하나였다는 점이다. (강성문, 『조선시대 도검의 군사적 운용』, 『고문화』 60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2, 67~68쪽).

로 활과 칼을 다루는 데 비교적 능숙하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성정군에 편성하여 지역 방어에 주력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무’는 兩班子枝로서 武를 業으로 하는 자의 役名이었는데, 이렇듯 양반 직역이던 업무는 숙종 22년에 서얼의 文武之稱으로 확정, 시행되어 서얼 직역화함으로써 그들의 지위가 중인층으로 저하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면역의 특권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교생’은 향교의 생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부터 평민 자제들이 군역 도피를 목적으로 향교 출입이 잦아지면서 표면적으로는 양반 자제들의 향교 출입을 기피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조정에서는 군인으로 충당할 양인을 확보하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향교의 교생 중 성적이 불량한 자를 그 충원대상으로 삼아, 교생에게 考講을 실시하여 떨어진 자들로 하여금 군역으로 충당하고자 했다.²⁰⁾

이처럼 ‘업무’와 ‘교생’과 같은 직역의 경우 양인을 비롯하여 하층민의 避役과 地位上昇을 위한 모칭·모록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군병도안』 내에서 대부분의 직역이 ‘업무’와 ‘교생’으로만 파악된 이유 또한 군병들 대다수가 군역에 충당되지 않기 위해 免役의 특권이 주어졌던 ‘업무’ 또는 ‘교생’의 직역을 모칭·모록한 결과가 아닐까 추정해 본다.

두 번째 특징으로 해당 군병의 성명 외에 ‘奴’의 신분이 성명과 함께 기재된 군병이 총 37명으로, 전체 1,900명의 군병 중 약 1.9%에 해당하는 수치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 장의 <표 3>에 보듯이 37명의 군병 가운데 20명이 마대와 속오 및 군수수술에 편성되어 ‘火兵’의 직임을 지녔다. 화병은 오늘날의 취사병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화병의 직임이 일반 군병에 비해 고역이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가장 하층에 존재하는 계층의 군병들이 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²¹⁾

이러한 사실은 이미 17세기 후반에 작성되어진 ‘군적부’에서도 화병이 등

19) 이준구, 『朝鮮後期の 〈業儒・業武〉와 그 地位』, 『진단학보』 60권, 진단학회, 1985, 44쪽.

20) 전경목, 『조선후기의 교생』, 『고문서연구』 제33호, 고문서학회, 2008, 288~289쪽.

21) 허원영, 『19세기 제주도의 호구와 부세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142쪽.

장하고 있음을 통해 이들 화병의 경우 일반 군병보다 신체조건뿐만 아니라 신분조건에서도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²⁾ 즉 당시에도 화병은 연령·신장·군력 모든 점에서 일반 군병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는 『병학지남』²³⁾에서 규정한 것처럼, 대오를 편성함에 있어 가장 마지막 11번째 군병은 ‘사람됨이 용렬하고 녹록하여 남의 부하됨을 달게 여기는 자’로써 ‘화병’으로 충정하는 원칙이 계속해서 지켜졌던 것으로 보인다.²⁴⁾

〈표 3〉 『군병도안』에 ‘奴’의 신분으로 기재된 사례

소속	지역	성명	나이	父성명	특기	직임
속오군	감산	奴금동	18	재성		속오중초 1기총 1대장 제11 화병(火兵)
		奴금석	20	재성		속오중초 3기총 1대장 제11 화병(火兵)
		奴영순	18	영운		속오중초 3기총 2대장 제11 화병(火兵)
	상예	奴순석	40	영호		속오좌초 화병(火兵)
		奴홍남	22	광복		속오좌초 1기총 2대장 제11 화병(火兵)
		奴금동	36	원길		속오좌초 2기총 1대장 제11 화병(火兵)
	창천	奴수석	19	고완		속오우사 화병(火兵)
		奴영석	39	동		속오중초 1기총 2대장 제11 화병(火兵)
		奴한철	40	영빈		속오중초 화병(火兵)
	하예	奴신무	46	성복		속오좌초 3기총 1대장 제11 화병(火兵)
		奴홍산	23	동		속오좌초 3기총 2대장 제11 화병(火兵)
	회수	奴순재	28	종대		속오전초 화병(火兵)
우마대	감산	奴충현	20	동	환도	3기총 3대장 제11 화병(火兵)
		奴순철	40	동	"	3기총 3대장 제12 화병(火兵)
	도원	奴철복	33	동	"	1기총 3대장 제11 화병(火兵)
		奴금철	20	순명	"	3기총 1대장 제11 화병(火兵)
	창천	奴영철	25	순명	"	화병(火兵)
		奴부대	58	동		2기총 3대장 제11 화병(火兵)
좌마대	창천	奴차량	29	신국	환도	3기총 3대장 제11 화병(火兵)
교직생	보성	奴옥영	25	봉득		객사직(客舍直)
	동성	奴진성옥	39	상록		육고자(肉庫子)

22) 김우철, 「17세기 후반 濟州 東伍軍의 編成 實態 - 『濟州東伍軍籍簿』의 분석 -」, 『한국사 연구』 132호, 한국사연구회, 2006, 102쪽.

23) 『兵學指南』 권2, 營陣正毅 扁兵第一, 「庸碌甘爲人下者一名爲第十一充火兵」.

24) 김우철, 앞의 논문, 2006, 102쪽.

소속	지역	성명	나이	父성명	특기	직임
군수수술	동성	奴광검	39	완득	환도	보진환도(補陳環刀)
		奴순행	34	양옥	"	
		奴수길	42	제원	"	
		奴한손	19	명록	"	
		奴용권	28	순록	"	
		奴백성	28	효득	"	구촉환도(驅促環刀)
		奴전수	43	부태	"	우구배환도(雨具陪環刀)
		奴시인	41	상원	"	재지환도(載持環刀)
		奴시준	25	상원	"	화병환도(火兵環刀)
		奴시홍	17	상원	"	재지환도(載持環刀)
		奴현충	59	춘민	"	위동배환도(衛東陪環刀)
	보성	奴서득	43	춘련	환도	급창환도(及唱環刀)
		奴영민	19	종일	"	방자환도(房子環刀)
		奴치인	31	중록	"	
		奴하동	38	봉득	"	
		奴한념	21	봉득	"	
합 계		총37명				

화병 이외에 ‘奴’ 신분의 군병들이 편제되어 있던 병종별 직임으로는 군수수술의 及唱, 房子, 補陳, 雨具陪 등과 교직생의 肉庫子, 客舍直이 있다.²⁵⁾ 급창(及唱)은 조선 시대에, 군아(軍衙)에 속하여 원의 명령을 간접으로 받아 큰 소리로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사내종이었고 방자(房子) 또한 조선시대 지방 관청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내종을 이르는 말로서 이들 또한 화병과 같이 신분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계층이 맡았던 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병도안』에서 ‘奴’의 신분으로 기재된 군병 가운데, 당시 호적중초에 등재된 사례는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표 3>의 내용을 토대로 현재 전해지는 『호적중초』자료 가운데 확인 가능한 마을은 ‘동성리’와 ‘회수리’ 2곳 뿐이다. 비교 대조한 결과 『군병도안』과 각 마을 호적중초에 동시 기재된 군병은 1명으로, 『1870년 동성리 호적중초』 상에 16통 5호에

25) 허원영, 앞의 논문, 2006, 142쪽.

기거했던 官奴 秦成玉²⁶⁾의 사례를 들 수 있다.

1870년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전후 식년을 확인하여 진성옥의 가계를 살펴 보면, 구성원 대부분이 官奴婢인 집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진성옥은 1840년 이전까지는 秦良旭이었다가 1840년에 진성옥으로 이름을 개명하였다. 그는 1849년에 21세의 나이로 그의 형인 良兼과 동생인 才玉과 함께 관노역을 지고 있었음을 호적중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아버지인 尙祿 또한 1861년 사망하기 전까지 대부분 관노, 書堂直, 直軍 같은 하층의 직역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성옥은 1855년을 전후한 시기에 金乂와 결혼을 하는데, 이후 1867년 호적중초부터는 妻 외에 妾인 吳乂가 등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관노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성옥은 1870년 ‘군병도안’에 육고자의 직임을 지니고 편제되었는데, 육고자는 肉庫에 속하여 지방관아에 육류를 바치던 관노로서 육지기 또는 육직이라고도 불리었다. 당시 1870년 ‘호적중초’상에서도 그의 직역이 관노로 되어 있어, ‘군병도안’과 ‘호적중초’ 상의 내용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진성옥의 동생인 재옥 또한 진성옥과 함께 ‘군병도안’에 편제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속오군에 편제되어 가장 말단인 11번째 군병으로 ‘火兵’의 직임을 맡았는데 성옥과 재옥, 두 형제는 관노비인 동시에 지방군에 편제되어서는 6고역에 비견될 만큼 고되고 어려운 직임을 맡음으로서 그들은 오랜 동안 하층의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1879년을 기점으로 성옥의 직역이 관노에서 각 식년마다 旗手에서 鎭撫로, 진무에서 鎭吏로 직역이 변동되고 있음을 통해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분적인 변화를 피하고자 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해당 군병의 나이가 <표 4>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 1,900명 중 단 6명의 연령만이 그 기록이 누락되었다. 15세 이하의 군

26) 『庚午式 / 同治九年 正月日 戶籍中草 / 東城里』 『第十六統 第五戶 官奴順行 年二十五 丙午 本南陽父 官奴 良玉 祖 作吏 祥祿 曾祖 假率 永好 外祖 作吏 / 吳應兼 本和順 / 祖母 金召史 年六十二 己巳 父 / 三寸 官奴 成玉 年四十二 己丑 / 三寸妻 金乂 年四十九 壬午 父 將官 庚孫 / 三寸妾 吳乂 年三十八 癸巳 / … 次三寸 霽直 才旭 年二十七 甲辰』.

병이 17명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당 군병들의 연령은 16~60세 사이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군병 가운데 30대가 506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40대가 459명, 20대가 456명의 순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표 4〉 『군병도안』에 등재된 군병의 연령별 분포

연령별(세)	城丁軍	馬隊	束伍	郡守隨率	防軍	烽烟軍	校直生	총계
11	0	1	0	0	0	0	0	1
12	0	0	0	0	0	0	0	0
13	0	1	1	0	0	0	1	3
14	0	0	0	0	0	0	0	0
15	0	1	10	2	0	0	0	13
16	0	4	4	2	0	0	0	10
17	1	4	12	5	0	1	0	23
18	2	3	13	2	6	0	0	26
19	5	3	33	5	4	4	1	55
11~19	8	17	73	16	10	5	2	131
20	3	25	50	4	3	9	3	97
21	0	8	16	2	1	3	0	30
22	1	3	24	1	1	3	0	33
23	2	5	29	4	3	1	0	44
24	2	1	11	1	1	7	1	24
25	2	17	27	4	4	9	4	67
26	3	10	12	4	2	3	1	35
27	1	4	11	4	5	4	1	30
28	7	6	28	3	8	4	1	57
29	7	8	12	1	4	6	1	39
20~29	28	87	220	28	32	49	12	456
30	8	19	31	5	16	18	6	103
31	9	9	25	9	3	3	4	62
32	5	5	16	2	6	3	5	42
33	9	3	19	1	5	5	4	46
34	4	2	13	2	4	2	2	29
35	6	14	9	5	7	15	1	57
36	9	6	21	2	3	4	0	45

연령별(세)	城丁軍	馬隊	束伍	郡守隨率	防軍	烽烟軍	校直生	총계
37	4	5	5	3	7	6	1	31
38	9	4	15	6	5	2	0	41
39	9	5	12	7	4	11	2	50
30~39	72	72	166	42	60	69	25	506
40	10	21	30	2	9	22	4	98
41	11	7	11	5	2	0	2	38
42	8	1	6	2	4	2	1	24
43	7	4	34	6	6	1	4	62
44	7	6	9	1	2	2	0	27
45	10	9	14	2	9	7	1	52
46	12	2	11	3	3	3	1	35
47	14	6	13	0	7	3	1	44
48	8	6	17	1	6	2	0	40
49	7	7	11	2	8	4	0	39
40~49	94	69	156	24	56	46	14	459
50	13	5	14	1	9	5	5	52
51	11	1	3	1	4	5	1	26
52	5	1	3	0	4	1	1	15
53	12	0	7	2	10	7	1	39
54	22	1	1	0	4	3	0	31
55	6	4	4	0	5	3	1	23
56	6	1	1	1	4	4	0	17
57	11	1	3	0	7	1	0	23
58	19	2	2	1	5	3	1	33
59	30	1	2	2	34	12	1	82
50~59	135	17	40	8	86	44	11	341
60	0	0	0	0	0	0	1	1
미기재	0	0	0	0	0	5	1	1
총계	337	262	655	118	244	218	66	1,900

네 번째는 해당 군병의 아버지의 성명을 기재한 부분인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군병도안에 등재된 1,900명의 군병들 중 26명 아버지의 성명 모두 똑같이 ‘東’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중 6명, 약 23%에 해당하는 자들이 앞에서 살펴봤던 ‘奴’의 신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병도안』 내에서도

그들의 직임은 화병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추정해보건대, 『군병도안』에 편제된 아버지와 아들 모두 그 신분상 대부분 하위 계층에 해당하여, 조선후기 『군병도안』을 작성할 당시 노비와 같은 하층민에 대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父에 대한 정보가 없을 시에는 대부분 ‘동(東)’이라고 일정하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해당 군병이 거주하는 마을을 각각 기록해 두고 있는데, <표 5>에서 보듯이 『군병도안』에 편제된 1,900명의 군병들은 각 30개의 동리에 나뉘어 거주했고, 각 거주지별로 군병의 수에서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군병도안』 내 군병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마을은 일파리로 205명, 전체 약 10.7%에 해당하는 군병들이 편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좌·우마대의 편제에 있어서 거주지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즉, 좌마대의 경우는 대부분 좌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군병을 편제했고 우마대의 경우는 그 반대의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로 군병을 각 131명씩 편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군병도안』에 등재된 군병의 거주지별 분포

(단위: 명)

면명	병종 리명	성정군	좌마대	우마대	속오	군수수술	방군	봉연군	교직생	총계
右面	甘山	12	0	3	25	2	4	7	4	57
	光淸	0	1	12	9	2	2	2	2	30
	德修	3	0	8	21	0	2	11	0	45
	桃源	36	0	14	0	1	47	5	0	103
	東城	26	1	7	68	39	7	9	16	173
	武陵	0	0	6	3	0	6	7	0	22
	保城	1	0	1	17	23	5	3	11	61
	沙溪	19	0	13	35	1	5	12	2	87
	上毛	31	0	4	28	1	25	3	4	96
	新坪	1	0	7	16	1	0	3	0	28
	永樂)	8	0	1	1	2	1	3	0	16
	仁鄉	0	0	0	3	0	0	0	0	3
	日果	29	0	8	63	9	64	30	2	205

면명	병종		성정군	좌마대	우마대	속오	군수수술	방군	봉연군	교직생	총계
	리명										
	中毛		4	0	8	22	2	6	6	1	49
	通泉		13	3	0	14	0	1	1	0	32
	下毛		8	0	21	42	3	48	9	2	133
	和順		8	0	13	16	1	0	16	4	58
계	17里		199	5	126	383	87	223	127	48	1,198
左面	江汀		7	22	0	37	7	4	17	0	94
	大浦		10	6	0	42	2	1	11	4	76
	道順		7	12	0	24	1	1	4	0	49
	上猊		17	10	0	25	0	4	1	2	59
	穢達		1	5	0	23	3	1	5	1	39
	月坪		2	0	0	2	0	0	4	2	10
	中文		14	19	0	32	5	0	8	5	83
	蒼川		28	14	5	16	3	3	5	0	74
	下猊		16	24	0	46	7	5	18	2	118
	河源		22	8	0	13	3	1	18	1	66
	回水		8	6	0	12	0	0	0	1	27
기타	暘谷		6	0	0	0	0	0	0	0	6
	土坪		0	0	0	0	0	1	0	0	1
계	13里		138	126	5	272	31	21	91	18	702
총계	30里		337	131	131	655	118	244	218	66	1,900

이처럼 『군병도안』 자료를 분석하여 군적 작성의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군병도안』의 특징적인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군병도안』은 19세기 제주지역 대정군에 소속된 군병의 편제에 관해 작성한 군적으로서, 병종별 소속된 군병들은 각각의 특기를 지니고 편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병도안』의 기재된 내용을 통해 당시 군병을 편제하는 데 있어, 신분적으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에 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奴’의 신분과 같은 신분적으로 하위에 있는 계층 또한 일반 군병에 비해서 하급병으로 편제되어 있는 사실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군병도안』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재된 군병의 편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에 조선후기의 여러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각 병종별 군액의 변화 또는 각 병종의 특징 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2) 『대정군군병도안』의 병종별 편제

『군병도안』의 편제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城丁軍이다. 성정군은 성안을 수비하던 군사를 지칭하는데, 조선시대 성정군은 제주지역 군제에 있어서 주요한 兵種으로서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헌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성정군의 군액을 시기별로 파악해 보면 우선, 1702년에 작성된 『탐라순력도』의 성정군 군액(224명)을 제외하고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 즉, 1870년대 이르기까지 『제주읍지』, 『제주대정정의읍지』, 『탐라지초본』, 『군병도안』에 나타난 성정군의 군액은 337명~379명으로 거의 비슷하게 기재되어 있다.²⁷⁾

〈표 6〉 『군병도안』에 기재된 성정군의 편제²⁸⁾

성정군 편제					
방위	구분	대오의 편성	합계	비 고	
北門	坎卦	• 旗手 1명 / 一擊臺 2명 • 第1垛~第19垛 37명*	40명	* 각 垛는 타장 포함 2인으로 구성, 단 제 19타는 타장 1인으로만 구성.	
	艮卦	• 旗手 1명 / 雉摠 1명 / 城將 1명 • 第20垛~第37垛 36명 / 率軍 5명*	44명	* 술군은 각기수, 서기, 취수 등으로 구성.	
東門	震卦	• 旗手 1명 / 雉摠 1명 / 城將 4명 • 二擊臺 1명 • 第38垛~第71垛 68명 / 率軍: 16명*	91명	* 술군은 서기, 기수, 금탁지, 문직, 화포수 등으로 구성.	
南門	離卦	• 旗手 1명 / 雉摠 1명 • 二擊臺 1명 • 第72垛~第105垛 69명* / 率軍 9명*	81명	* 제93타는 고지 1인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 * 술군은 남문장, 서기, 기수, 취수 등으로 구성.	
西門	兌卦	• 旗手 1명 / 雉摠 1명 / 城將 3명 • 五擊臺 1명 / • 第106垛~第135垛 60명 / 率軍 15명*	81명	* 술군은 서기, 기수, 금탁지, 각기수, 훈도 등으로 구성.	
합계			337명		

27) 〈조선 후기 시기별 제주 대정현 成丁軍 군액 변화〉

연대 병종	연대	18세기 전반	18세기 중반	18세기 후반	19세기 중반	19세기 후반
	전거	탐라순력도 (1702년)	제주읍지 (편대미상)	제주대정정의읍지 (1793년)	탐라지초본 (1841~43년경)	대정군군병도안 (1870년)
성정군(成丁軍)		224명	379명	379명	379명	337명

28) 해당 표는 김동진, 앞의 논문, 2001, 209~210쪽 및 허원영, 앞의 논문, 2006, 359쪽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위의 <표 6>은 『군병도안』에 기재되어 있는 성정군의 편제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으로 성정군은 북문 84명, 동문 91명, 남문 81명, 서문 81명으로 모두 33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팔괘의 감괘·진괘·이괘·태괘를 나타내는 기수를 선두로 북·동·남·서문 순으로 대오를 편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각垛는 垛長 1명과 타장을 보좌하는 군인 1명, 즉 2인 1조를 이루고 각 성문에는 門樓를 세워 위엄을 갖추고 성벽에는 요소마다 女牆을 위시하여 雉 등을 배치하고 이를 지휘하는 雉總을 각 1명씩 두었다. 또한 적을 공격하기 위해 편리하도록 성 위에 擊臺를 높이 쌓아 만들었으며, 率軍으로서 角旗手·書記·鼓手·吹手 등을 배치하였다.

다음은 馬隊이다. 제주지역은 예로부터 목장지대로써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4,000~10,000필 내외의 말이 사육되어 대부분 조정에 공물(貢物)로 진상되고 있었다.²⁹⁾ 즉, 조정의 외교·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제주지역의 목장은 더욱 확대·강화되어 목축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말이 항상 풍족했고, 친숙하였기 때문에 마병의 양성이 용이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지역의 경우 왜적 등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주변 해안선을 1차 방어선으로 삼아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기동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마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숙종 28년(1702) 제주에 부임한 목사 이형상이 여러 고을을 순력하면서 작성한 『耽羅巡歷圖』의 「大靜操點」과 「橋來大獵」 등에서도 말을 타고 사냥하는 모습이나 마병의 훈련과 점검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 제주지역 군사제도에서 있어 마병이 주요한 兵種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³⁰⁾

특히 헌종 13년(1847)에 제주 군제개혁이 시행되면서 본래 10초였던 마대는 대정과 정의 양읍에 각각 2초씩 증설된 바 있다.³¹⁾ 헌종 13년(1847)의

29) 김동진, 「조선후기 전기-제5절 제주의 마정과 공마」, 『제주도지』, 제주도, 2006, 397쪽.

30) 서태원, 「朝鮮後期 地方軍 運用과 營將制」, 『동서사학』 제6·7합집, 동서사학회, 2000, 130~131쪽.

31) 『濟州啓錄』 도광 27년(헌종 13년, 1847) 6월 7일, 「即見濟州牧使李宜植所報 即以爲本島接洋異域 其所備虞 尤當自別 以馬隊十哨內 本州六哨 大靜二哨 旌義二哨 東伍三十哨內 本州二十三哨 大靜二

제주 군제개혁을 기준으로 삼은 까닭은 당시 이 군제개혁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속오군과 마대가 증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병종으로서 별아병이 신설되는 등 그 편제와 군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수반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대의 편성은 좌마대와 우마대로 편성하고 각 마대에는 哨官·書記·認旗手등과 隨從 2명이 함께 소속되어 있으며, 각 隊는 대장 1명, 마병 10명, 화병 2명 모두 13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좌마대의 구성은 1대에 13명씩 9대 117명(마병 99명, 화병 18명), 기총 3명, 초관 등 11명을 포함하면 131명이 된다. 따라서 『군병도안』 내에서의 마대의 군사는 좌·우마대를 합하면 총 262명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東伍軍은 임진왜란 발발 이후 군사·제도적으로 변화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지방군제가 새롭게 정비되기에 이르면서 성립된 것이다. 속오군이 성립될 당시에는 임진왜란 등 전쟁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직으로서 성립되었으나, 임진왜란이 수습된 상황에서도 속오군은 점진적으로 지방군의 근간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경우, 대정군의 속오군은 『제주읍지』에 속오 2초 240명, 『제주대정정의읍지』에 속오군 240명, 『탐라지초본』에 속오군 240명으로 변동 없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 속오군의 1哨를 구성하는 군병은 대부분 120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를 통해 제주지역 속오군의 증설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즉, 현종 13년(1847)에 제주 군제개혁을 통해 속오군의 경우는 기존의 30초에 방영 소속의 속오군 20초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한편 기존에 대정의 속오군은 2초에 불과하여 1사(司)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 누락된 장정들을 조사하게 하였고 이후 대정과 정의에는 각각 5초씩 속오군을 편성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속오군은 방영에는 50초가 편성되었고 대정의 右司와 정의의 左司는

哨 旌義五哨 以若零星之兩邑 各哨皆爲管領於防營 則疎漏莫甚 自今劃付各該邑 使之主管 大靜東伍查其漏丁 加設三哨 把哨依例差定 昨秋漏丁查得 爲七千三十六名 就此一千三百七十一名 充代於兩邑十一哨劃付之 數 本州東伍加設二十哨 則軍制成樣 且島人砲手 最是精放抄定十哨 各以別牙兵砲手 領將一人 以前啣朝官中差定領率 每於操鍊 一體應點 此外餘數待闕填充 兩邑各哨春秋聚點 自該縣設行 馬兵都試來赴營下 寮爲方便 而事係軍制 以待處分云矣。」

각각 5초씩 증설하여 완전한 속오군 편제의 완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속오군의 기본 편제는 속오법에 따라 伍는 5명으로 1隊는 2오 10명, 대장 1명, 화병 1명으로 총 12명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1旗는 3대 36명, 기총 1명으로 총 37명으로 편제되었고, 1哨는 3기가 모였으므로 총 121명으로 편제되었다. 마지막으로 1司는 전·좌·중·우·후 5초에 605명과 파총 1명, 차비군 49명으로 총 655명의 속오군이 편성되어 있었다. 앞서 밝힌 바, 대정군의 속오군은 右司만 존재하였는데 속오법에 따라 1사-5초-15기총-45대로, 총 655명이 편제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주요 병종 외에 烽·烟軍 및 郡守의 隨卒과 防軍, 校直生이 편제되어 있다. 봉수와 연대는 높은 산이나 해안 구릉에 설치하여 불이나 연기를 피워 위급한 소식을 전하는 통신체제로서 잦은 왜적의 침입이 잦았던 제주지역의 경우 일찍부터 봉수와 연대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대정군에 소속된 봉수로는 堀山烽, 伊頭烽, 募瑟烽, 貯別烽, 堂山烽으로 각각 別將 6명, 伍長 1명, 軍 5명, 保 6명으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총 5개 처에 90명이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대의 경우는 邊水烟, 大浦烟, 唐浦烟, 山房烟, 無水烟, 西林烟, 牛頭烟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 연대에는 별장 6명, 오장 1명, 군 5명 총 12명이 각각 7처에 총 84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봉수군은 밤낮으로 망을 보고 봉수대에 불을 올리는 일을 직접 담당했고, 오장은 봉수군과 함께 지내면서 봉수군을 감시하며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³²⁾ 그리고 대정현에는 5개 처에 把守가 존재했는데, 東面, 星川, 中面, 犯川, 西林에 해당하는 지역에 8~10명 정도가 소속되어 총 44명의 파수가 『군병도안』 상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군수의 수솔은 당시 대정군수 휘하의 군인들로서 訓導, 牢子, 及唱 등 118명에 이르는 군병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校生, 習馬 등을 포함한 66명의 校直生이 『군병도안』에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차귀·모슬진 소속의 防軍과 파수가 존재하였는데, 차귀진방군의 경우 치총 2명, 훈

32) 최형국, 『전통시대 최고의 통신망, 봉수』, 『조선무사』, 인물과 사상사, 2009, 55쪽.

도 2명을 포함하여 총 81명이 기재되어 있고 모슬진방군의 경우 치총 2명, 훈도 1명을 포함하여 총 69명이 기재되었다. 그리고 파수의 경우 두 진에 각각 47명씩 편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주지역의 변화된 군제는 19세기 후반까지 잘 유지되어 갔으나 광무연간 들어서면서 제주의 군병은 모두 폐지되기에 이른다. 1895년 윤(閏) 5월 7일에는 ‘각 도 외영의 군병들의 해방에 관해 재가하여 반포하게 한다’는 내용이 하달되어 군병이 해방되는 한편, 이틀 뒤인 5월 9일에는 ‘각 처 봉대에 봉·연군을 폐지하는 건을 삼가 올려 아뢰입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미루어 짐작하면 당시 봉·연군 또한 폐지되었을 것이라 보인다.³³⁾

또한 두 달 뒤인 7월 15일에는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을 비롯한 진영(鎭營), 진보(鎭堡)를 폐지하는 명령이 전국에 하달되어³⁴⁾ 대부분의 군병은 모두 혁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1899년에 작성된 『대정군고지』와 『정의군고지』에서 ‘軍兵 無’라고 기록되어진 점으로 보아 제주의 군병 편제가 1899년 이전 시기에 혁파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호적중초와 『대정군군병도안』의 군병 직역 실태

1) 호적중초에 보이는 군병의 직역 분포

호적중초의 대부분은 제주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18~19세기 걸쳐 약 100여 년 간 정기적으로 작성되어져 그 식년별 연속성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호주와 그의 四祖에 이르는 구성원의 직역과 가족관계

33) 「勅令第111號 各道外營兵丁의 解放에 관한 件」, 개국 504년 윤 5월 7일; 「奏本 各處烽臺의 烽燈軍廢止하는 件」, 개국 504년 윤 5월 9일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1970, 433쪽).

34) 「勅令第140號 各道の 兵營과 水營을 廢止하는 件」 개국 504년 7월 15일; 「勅令第141號 各鎭營을 廢止하는 件」 개국 504년 7월 15일; 「勅令第142號 各鎭堡을 廢止하는 件」 개국 504년 7월 15일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1970, 433쪽).

등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앞 장에서 다루었던 1870년 『군병도안』에 기재된 군병의 성명, 나이, 직역, 거주지 등의 단서를 토대로 시기적으로 맞닿아 있는 제주도 대정현 호적중초 자료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군병도안』과 호적중초 자료에 동시 기재된 군병들의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군병들의 병종과 직업에 따라 그 해당 마을의 호적중초에서는 어떠한 직역으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의 실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표 7〉 1870년 대정현 12개 里 호적중초에 나타난 군병 직역 분포³⁵⁾

里 職役	대포*	덕수	도순	동성	사계	영락	월평*	일과	중문*	하모	하원	회수	합계 (명)	비율 (%)
假率	38	13	18	23	34	10	4	32	43	38	23	6	282	34.5
軍器監	1	1	1							1	1		5	0.6
旗手				3	1	1		2				1	8	1.0
旗牌						1							1	0.1
募防軍		3		5	12	1		2	2	10			35	4.3
牧假率		1				1							2	0.2
牧旗牌		3		5		4		1		1		1	15	1.8
防軍								12					12	1.5
別將					1	1							2	0.2
副司果									1				1	0.1
司果	4	2	2	2						1			11	1.3
城將	13	9	6	5	12	3	2	13	9	9	6	1	88	10.9
牙兵		3	1	2		1		1					8	1.0
營假率		3	4	11		2		2				2	24	2.9
營旗牌		6	2	3		2		1		5	3	2	24	2.9
將官	8	4	3	3	4			3	3	1	5	3	37	4.6
助防將			1	1						1			3	0.4
直軍	1			7									8	1.0
鎭撫	6		5	12	2			13	6	6	4	1	55	6.7
遮防軍				1		1		9					11	1.3

35) *로 표시된 里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호적중초 중 1870년 식년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지 않은 관계로 그 전 식년인 1867년 호적중초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千擧	15	14	8	17	15	5	3	2	7	7	3		96	11.7
出身		1			1					3			5	0.6
把擧	11	10	4	6	7	2	4	13	8	7	6	3	81	9.9
平役軍					4								4	0.5
합계	97	73	55	106	93	35	13	106	79	90	51	20	818	100

〈표 7〉은 1870년 제주 대정현 12개 里의 호적중초상에 기재되어 있는 군병의 직역 분포를 파악한 것이다. 假率에서 平役軍에 이르기까지 총 24개 군병 직역을 지닌 818명의 주민들이 호적중초 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가솔 직역을 지닌 자가 282명, 약 34.5%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천총, 성장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 편제에 있어서 〈표 7〉에 나타난 여러 군병 직역의 경우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당시 중문리·대포리·하모리 등 주로 해안가에 형성된 마을에서 큰 분포를 보이고 있는 가솔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솔은 함경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변방지역에 설치된 특수 군직으로서 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인 변방지역의 군비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었다.³⁶⁾ 제주지역의 가솔은 『제주대정정의읍지』에 따르면 제주목사 소속으로는 90인, 제주판관 소속으로는 34인 총 124인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고 『탐라지초본』 군액조에 서도 108인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가솔은 군관으로서 직접 군역에 충정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즉, 가솔의 성격은 편오의 군사가 아니라 일정한 현물 및 현금을 납부하고 군역에서 제외되는 존재였다고 하겠다.³⁷⁾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적인 우위를 지니기 위해 하층민의 경우 호적중초 상에서 모록·모칭하는 방법을 통해 ‘가솔’로의 신분변동을 꾀하는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천총과 성장의 경우도 당시 제주지역 지방군에 편제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천총의 경우 제주지역 속오군 1부의 총 책임자였

36) 정수환, 「19세기 가솔의 성격과 제주사회」, 『제주도연구』 23집, 제주학회, 2003, 195쪽.

37) 정수환, 위의 논문, 2003, 237쪽.

고, 성장은 각 읍성에서 성을 수비하는 성정군을 지휘·감독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순리·동성리·하모리에서만 확인된 ‘助防將’은 제주진관 소속 9개 방호소 가운데 명월방호소를 제외한 방호소의 책임자로 각 방호소에 성을 쌓아 방어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司果·副司果와 같은 관품직역 또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품 취득자의 경우 모두 중앙의 實職을 역임했다기보다는 濟州子弟 혹은 代加, 납속의 방법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대부분 散職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³⁸⁾

이처럼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경우 대부분 포구를 중심으로 한 해안가에 취락을 형성하거나, 중산간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빈번하게 침입해 오는 왜적을 방어하기 위해 각 마을에서는 진성을 쌓거나, 해안가 또는 높은 산 주변에 연대와 봉수를 설치하여 그들만의 방어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은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군사적 방어체제 확립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진 상황에서 호적중초에 기재된 주민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군역의 부담을 안고 있는 계층으로서 그와 관련한 직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솔·아병과 같은 특수한 군병 직역이나 당시 제주지역의 가장 많은 군역을 차지하고 있던 속오군에 소속된 군관직으로서 천총·파총 등이 대다수 등장하고 있는 등 대정현 각 마을별 호적중초를 통해 이러한 군병 직역 실태를 파악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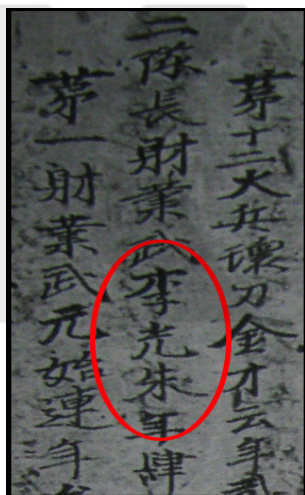
2) 『대정군군병도안』의 군병 직역 기재 양상

여기서는 1870년 대정현 군병의 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군병도안』 자료와 대정현 호적중초 자료를 활용하여 두 자료에 동시 기재된 군병 가운데 각 병종별, 마을별로 호적중초 상에 어떠한 직역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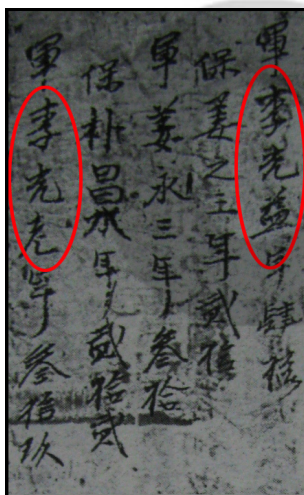
38) 김동진, 「19세기 제주지역의 신분구조와 직역의 사회적 의미」,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17쪽.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12개 마을 중 1870년 호적중초가 현존하지 않는 대포리, 월평리, 중문리의 경우는 그 전 식년인 1867년 호적중초를 참고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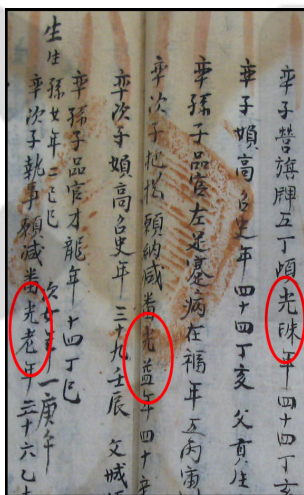
먼저 『군병도안』과 호적중초 자료에서의 군병의 기재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즉, 『군병도안』에서는 성명, 직역, 나이, 거주지뿐만 아니라父의 성명 등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서로 각 마을별 호적중초에서 그들의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1>는 1870년 『군병도안』에 등재된 군병이 호적중초 상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재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 『대정군군병도안』
좌마대에 소속된 군병



(나) 『대정군군병도안』
굴산봉수에 소속된 군병



(다) 『하원리호적중초』
군병의 기재 사례

<그림 1> 『대정군군병도안』과 호적중초에 동시 등재된 군병의 기재 사례

위의 <그림 1>을 살펴보면 (가)는 『군병도안』에서 左馬隊에 소속되어 있는 李光朱의 기재 사례로, 그는 2대장의 직임을 맡고 있었는데 『군병도안』 내에 기재된 그의 직역은 業武이고 특기는 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에는 이광주와 더불어 그의 동생으로서 窟山烽燧 소속인 봉군

李光益과 李光老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세 명은 같은 형제로서 『군병도안』 내 각기 다른 兵種에 소속되어 지방군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들의 兄弟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다)의 호적중초 자료로서 제주 ‘대정현하원 리호적중초’에는 이광주 형제가 같은 호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⁹⁾ 『군병도안』과 호적중초 자료를 비교 확인한 바, 한 戶에서 형제 또는 부자, 친족, 차입자가 함께 군병으로 편제된 경우는 109사례나 되며, 그 군병의 숫자는 249명에 이른다. 이는 『군병도안』의 1900명 가운데, 약 13.1%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군병도안』에 등재된 군병 가운데 12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군병의 현황을 파악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1870년 『군병도안』과 호적중초에 동시 등재된 군병의 현황

(단위: 명)

리명	호	구	남	여	『군병도안』 등재 군병	호적중초 등재 군병(%)
대포리	104	683	327	356	76	62(81.5%)
덕수리	81	585	226	359	45	35(77.8%)
도순리	101	628	238	390	49	35(71.4%)
동성리	231	1389	596	793	173	96(55.5%)
사계리	89	884	379	505	87	62(71.2%)
영락리	45	262	105	157	16	13(81.2%)
월평리	23	148	58	90	10	9(90.0%)
일파리	154	1260	527	733	205	75(36.6%)
중문리	130	964	382	582	83	54(65.0%)
하모리	146	1026	447	579	133	86(64.6%)
하원리	55	495	219	276	66	53(80.3%)
회수리	56	459	167	292	27	18(66.7%)
합 계	1,215	8,783	3,671	5,112	970	598(61.6%)

39) 『濟州 河源里 戶籍中草』(1870, 4통, 3호)

戶主: 營旗牌司果 李廷宗 (69세, 本-全州) / 父: 業武 興春(故) / 祖: 業武 世亨(故) / 曾祖: 譚生 雨(故)

子: 營旗牌五丁 顏 光珠 (44세) / 次子: 把總願納減番 光益(40세) / 次子: 執事願納減番 光老(36세)

우선 『군병도안』에서 확인된 1,900명의 군병 가운데 호적중초가 남아 있어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마을은 대포리, 덕수리, 동성리 등 총 12개 마을에 거주하는 970명의 군병들이다. 이들 중 분석 대상인 대정현 12개 마을 호적중초를 추적한 결과, 각 마을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된 군병은 모두 598명으로 약 61%에 해당하는 군병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마을별 호구현황을 참고하여 봤을 때, 월평리는 『군병도안』에 기재된 10명의 군병 중 9명(90.0%)을 호적중초 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대포리의 경우도 76명의 군병 중 62명(81.5%)에 해당하는 군병을 각각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월평리나 대포리 등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군병도안』에 등재된 군병들의 신분이 호적중초 상에서 각 戶의 戶主 또는 子, 弟, 借入 등으로 기재되어 대부분 70% 이상 확인이 가능했던 반면에 일과리의 경우는 호적중초에 등재된 군병들을 파악해 본 결과 205명의 군병 중 75명(36%)에 해당하는 군병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즉, 각 마을별로 『군병도안』과 호적중초에 동시 기재되어진 군병을 파악하는데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군병도안』과 호적중초를 작성할 당시의 기재상의 오차를 감안한다 해도 일과리처럼 『군병도안』에서 확인된 205명의 군병 중 1870년 당시 마을 인구가 1260명에 달하면서 호적중초 상에서 확인된 군병의 수가 75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호적중초와 『군병도안』의 상호관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즉, 이는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호적을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군역부과대상으로서 호적의 본분(本分)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 가는 과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⁰⁾

이처럼 각 군병들은 『군병도안』에서 보여지듯이 성정군, 마대, 속오군 등에 편제되어 당시 대정현의 지역방어체제를 이루었는데 그렇다면 『군병도안』의 성정군, 마대, 속오군, 봉·연군, 모슬·차귀진방군, 군수수술, 교직생의 편제에 따라 호적중초 자료에 나타난 598명 군병의 직역이 어떠했는지 그 실태

40) 송양섭, 「18·19세기 단성현의 군역 파악과 운영」,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438쪽.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병도안』에 등재된 군병들 가운데 12개 마을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군병은 모두 598명이다. 군병의 마을별 분포를 살펴보면 동성리(96명), 하모리(86명), 일과리(75명), 사계리(62명), 대포리(62명), 중문리(54명), 하원리(53명), 덕수리(35명), 도순리(35명), 회수리(18명), 영락리(13명), 월평리(9명) 순으로 분포하고, 이들 군병 가운데에서 『군병도안』의 각 병종별 편성에 따라 마을별 호적중초에서 확인된 군병의 직역 실태는 다음의 표에서 설명할 수 있다.

〈표 9〉 『대정군군병도안』의 ‘성정군’에 편성된 군병의 직역 기재 실태

(단위: 명)

편성	리명	대포	덕수	도순	동성	사계	영락	월평	일과	중문	하모	하원	회수	
직역	연도	1867	1870	1870	1870	1870	1870	1867	1870	1867	1870	1870	1870	합계
성정군 (337명)	가솔				1					1				2
	교생		1						4	3	1	1		10
	별감												1	1
	성장				1			1	1					3
	유생	3										2		5
	유품관												1	1
	유학	3			1	7	2		4	1	2	8	3	31
	유향별감				2		2			1	1	3		9
	자망				1									1
	작리			1										1
	장인				1									1
	장의	1		1	2	8			1		1	3		17
	진무				1				1					2
	천총		1								1			2
	청금				1									1
	품관	2		1	2	1		1		2		1		10
	풍헌				1									1
	학생												1	1
	한량				2									2
	호장				1	1	1		2	2	1			8
	진리						1							1
	업유								1					1
	원생								1					1
	합계	9	2	3	17	17	6	2	15	10	7	18	6	112

위의 <표 9>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병도안』의 城丁軍에 편성된 군병들 중 12개 마을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 군병들을 각 마을별 호적중초에서 확인하여 그 직역 기재 실태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우선 『군병도안』의 성정군에 편성된 군병은 모두 337명으로, 이들 중 대정현 12개 마을 호적중초에서 확인된 군병은 112명으로, 약 33%에 해당하는 군병의 직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 군병의 직역을 살펴보면 幼學, 掌議, 校生, 品官 등의 순으로, 대부분 양반 신분에 해당하는 직역을 지닌 자들로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학의 직역을 지닌 군병은 31명으로, 사계리와 하원리 마을에서 가장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장의의 직역을 지닌 군병은 17명으로 이 또한 사계리 마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계리 마을을 중심으로 유학을 비롯하여 교생과 장의, 품관과 같은 직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본래 대정향교가 대정현 성내에 자리잡고 있다가, 효종 4년(1653)에 사계리로 옮겨지게 되면서 당시 사계리(지금의 서귀포시 안덕면) 근처 簾山 락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정향교의 所在가 당시 사계리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사계리에서는 유학을 비롯하여 향교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서 장의, 교생과 같은 직역은 양반 신분에 해당하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향교의 출입이 다른 계층에 비해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⁴¹⁾

또한 제주지역에서의 장의 직역인 경우는 당시 향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자금이나 토지 등을 제공하고 호적중초상에서 장의의 직역을 冒稱・冒錄하여 획득한 결과로, 상위계층으로의 신분 상승을 꾀하고자 하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장의를 비롯한 <표 13>에서 나타나는 留鄉別監, 風憲과 같은 직역은 제주지역 호적중초에서만 주로 확인되는 직역이라 하겠다.⁴²⁾

41) 허원영, 앞의 논문, 2006, 88쪽.

42) 김동전,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 『역사민속학』 제19호, 한국역사민속학

그렇다면 유학이나 장의, 교생과 같이 양반 신분에 속하는 직역을 획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良人 丁男에 한해서 군역을 지냈던 당시 조선시대 사회에서 군역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중초상에는 분명히 유학의 직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군병도안』에 올라 군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양반신분에 속하는 직역을 지닌 자라도 군역에서 모두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당시 제주지역 지방군을 편성하는데 있어, 군사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군역을 충당하는데 유학류의 양반 신분에 해당하는 자들 또한 함께 지방군에 편성되었던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표 10〉 『대정군군병도안』의 ‘마대’에 편성된 군병의 직역 실태

(단위: 명)

편성 직역	리명	대포	덕수	도순	동성	사계	영락	월평	일과	중문	하모	하원	회수	합계
	연도	1867	1870	1870	1870	1870	1870	1867	1870	1867	1870	1870	1870	
마 대 (262명)	가솔			2							1			3
	교생	1			1	2					1			5
	목자												1	1
	별장						1							1
	사생									1				1
	서원									1				1
	성장					1				1				2
	약한					1								1
	기패		1									1		2
	답한	1		1						1				3
	유생											1		1
	유품관			1						1	3			5
	자망										1			1
	작리											1		1
	장의		1	1	1									3
	재직				1									1
	진무			1							1	1		3

회, 2004, 128~129쪽.; 김동진, 「조선후기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실태와 그 성격」 『역사민속학』 제 20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157~158쪽.

편성 지역	리명	대포	덕수	도순	동성	사계	영락	월평	일파	중문	하모	하원	회수	합계
	연도	1867	1870	1870	1870	1870	1870	1867	1870	1867	1870	1870	1870	
	목자				1								2	0
	방군					4								0
	사령		1		2									3
	사생									2				2
	성장	1	1			2					1	1		6
	원생								2					2
	유품관			2		2				4	2	1		11
	자망				1				2					3
	작리			5					2		1	1		9
	장관		1								1			2
	장의								1					1
	장인				1									1
	진리						1							1
	진무	1			1									2
	집사		1	1	2				1	1	4	2		12
	천총			1										1
	파총	4	5		1	1			2	2		1	1	17
	품관	27	5	3	7	9		1	13	7	13	4		89
	한량	1	2	3	3				2	1	4			16
	호장			1	2				3		2		1	9
	효음복 호					1					2			3
	합계	6	6	7	23	14	0	1	14	10	7	4	7	99

『군병도안』의 속오군에 편성된 군병은 모두 655명으로, 이들 중 대정현 12개 마을 호적중초에서 확인된 군병은 250명에 달하며, 약 38%에 해당하는 군병들의 직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 군병의 직역을 살펴보면 品官 직역자는 89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군병은 假率 직역을 지닌 자들로서 32명으로 파악되었고 이 밖에도 파총, 한량을 비롯해 작리, 답한, 목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의 군병들이 속오군에 편성되고 있다.

또한 마을별 분포에 있어서도 속오군에 편성된 군병들은 대부분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동성리(40명), 대포리(39명), 일과리(35명), 하모리(32명) 순으로 많이 분포되고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 당시 지방의 예비군적인 성격을 지니는 보병 부대로서 속오군에 편성된 군병들은 각 거주하던 리에 따라哨를 구성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이들 군병의 직역 가운데에서 품관의 직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마대에 편성된 군병 중에도 또한 품관 직역을 지닌 자가 상당수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시 품관 직역자가 제주지역 지방군의 여러 병종에 걸쳐 편성되어 지방군을 이루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품관의 성격을 살펴보면, 본래 품관은 품계를 받은 모든 관원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조선 중기 이후에는 품관이 座首와 別監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면 都監과 監官 등도 역시 품관이라 통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³⁾

이처럼 조선 중기 이후의 품관은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군현에서 일어나는 실무에까지 직접적으로 간여하였고, 당시 이들의 신분이 비록 양반으로 구분되었다고 하나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는 평민 또는 공·사천에 이르는 자들이 품관직을 역임할 정도로 신분상 많은 변화를 거쳐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품관직역을 지닌 자들이 대부분 예비군적인 성격을 지닌 속오군에 소속되어 지방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품관 이외에도 가솔의 등장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제주지역 가솔의 경우 대체적으로 연령대는 낮게 분포하고 있으면서 천총, 파총, 장관 등의 군관직으로 신분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호적중초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⁴⁴⁾

그리고 당시 가장 하층역으로 인식되었던 방군, 답한, 목자의 직역을 지닌 군병들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호적중초에서만 특이하게

43) 전경목, 「조선후기 品官과 그들의 생활상」, 『인문콘텐츠』 창간호, 인문콘텐츠학회, 2003, 245~246쪽.

44) 정수환, 「19세기 가솔의 성격과 제주사회」, 『제주도연구』23집, 제주학회, 2003, 195쪽.

나타나는 畚漢은 관둔답을 경작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19세기 답한의 신분적인 지위를 살펴보자면 중인 신분의 서얼 출신자, 업무業武의 시사試射에서 떨어진 자, 서원에서 낙강한 자, 품관층에서 割出된 자들을 포함하는 양인 신분층으로 보고 있다.⁴⁵⁾ 이들은 대부분 『군병도안』 안에서 속오군뿐 만 아니라 마대 등에 주로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직역 자체가 원신역으로서 상당한 苦役으로 여겨졌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러한 내용은 『탐라록』에 나타난 「六苦歌」에도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당시 6苦役으로 牙兵, 牧子, 船格, 果直, 防卒, 烽軍을 들고 있다.⁴⁶⁾ 이러한 6고역 계층은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존재하였는데, 그들의 제주지역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6가지 직역을 영위하면서 가장 하층의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속오군에 편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12〉 『대정군병도안』의 ‘봉·연군’·‘모슬·차귀진방군’에 편성된 군병의 직역 실태

(단위: 명)

편성 직역	리명	대포	덕수	도순	동성	사계	영락	월평	일과	중문	하모	하원	회수	합계
연도	1867	1870	1870	1870	1870	1870	1870	1867	1870	1867	1870	1870	1870	
봉·연군 (218명)	가솔	1	1		1	1		1				4		9
	교생		1			1								2
	성장	1	1						2	1		2		7
	기패						1							1
	유품관					1								1
	자망			1						1	1	2		5
	집사		1	1							1	2		5
	천총	1		1	3	4	2	1	1	4	1	3		21
	파총	1						2	3					6
	품관		2			1			1			2		6
	장관	1							2					3

45) 김동전, 1993, 「18·19세기 畚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역사민속학』 제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73~74쪽.

46) 6고역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따랐는데 본래 牧者·畚漢·船格·果直·潛女·鮑作을 지칭하였으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牧者·鮑作·紙匠·遺軍·畚漢·船格을, 19세기 전반에는 牙兵·牧者·防軍·船格·果直·畚漢 혹은 牧者·鮑作·畚漢·防軍·船格·牙兵을 지칭하였다.(김동전, 앞의 논문, 61~62쪽).

편성 지역	리명	대포	덕수	도순	동성	사계	영락	월평	일과	중문	하모	하원	회수	합계
	연도	1867	1870	1870	1870	1870	1870	1867	1870	1867	1870	1870	1870	
	군기감			1										1
	방군				2						2			4
	합계	5	6	4	6	8	3	4	9	6	5	15	0	71
모슬· 차귀진 방군 (244명)	가솔		1								1			2
	성장										3			3
	기패								1					1
	유품관										1			1
	자망				1									1
	집사								1					1
	파총								1					1
	품관										4			4
	장관								1					1
	방군								6		1			7
	서원직					1								1
	진무					1			1		4			6
	유학										1			1
	훈도										2			2
	사령										1			1
	조방장										1			1
	호장										4			4
	합계	0	1	0	1	2	0	0	11	0	23	0	0	38

『군병도안』의 봉·연군에 편성된 군병은 모두 218명으로, 이들 중 대정현 12개 마을 호적중초에서 확인된 군병은 71명에 그쳤고, 약 36%에 해당하는 군병들의 직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 군병의 직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千總, 假率, 城將과 같은 군관직에 해당하는 직역을 지닌 자들이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속오군에 편성된 군병들 가운데 품관 직역자가 89명에 달하고, 봉·연군에 속한 군병 중 천총 직역자가 21명으로 다른 직역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추측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당시 역을 담당하던 하층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역 또는 賤役을 피하고, 조선후기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편승하여 신분 상승을 피하고 역을

경감하기 위해 호적중초 상에서 직역을 모록·모칭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각 병종별로 신분상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역자들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모록·모칭 현상은 조선후기 당시 품관, 장의, 교생을 비롯한 군관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나타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병도안』에는 모슬진방군이 116명, 차귀진방군이 128명으로 총 244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직역을 호적중초상에서 확인해 본 결과 불과 38명으로 약 16%에 해당하는 군병들의 직역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이는 다른 병종들에 비해 방군에 속한 군병들이 호적중초에 기재된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호적중초에서 확인된 이들의 직역은 방군을 포함하여 유학, 품관, 호장과 같은 양반 혹은 중인층에 속하는 직역을 지닌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위의 <표 12>에서 확인된 것은 아주 단편적인 사실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당시 조선시대 제주사회에 있어 6고역에 해당되는 고역으로 간주되었던 봉·연군과 방군에는 하층의 신분에 해당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교생과 같은 양반신분에 해당하는 계층과 더불어 파총, 천총, 조방장 등과 같은 군관직역을 지닌 중·상민신분의 계층이 함께 제주지역 지방군에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대정군군병도안』의 ‘군수수술’·‘교직생’에 편성된 군병의 직역 실태

(단위: 명)

편성 직역	리명	대포	덕수	도순	동성	사계	영락	월평	일과	중문	하모	하원	회수	합계
연도	1867	1870	1870	1870	1870	1870	1870	1867	1870	1867	1870	1870	1870	
군수수술 (118명)	가솔				1									1
	집사									1				1
	파총									1				1
	진무				1				1		1	1		4
	사령				5									5
	호장				2		1					2		5
	기관	1												1
	천총	1									1			2
	작리			1						1				2

편성 지역	리명	대포	덕수	도순	동성	사계	영락	월평	일과	중문	하모	하원	회수	합계
	연도	1867	1870	1870	1870	1870	1870	1867	1870	1867	1870	1870	1870	
	공생				1									1
	기수				2									2
	담한				1									1
	직군				1									1
	파장				1									1
	향리				1									1
	진리						1							1
	합계	2	0	1	16	0	2	0	1	3	2	3	0	30
교직생 (66명)	공생				1									1
	관노				1									1
	교생	1			1	1		1	2	1				7
	목자												1	1
	습마				1									1
	유향별감											1		1
	작리				2									2
	직군				2									2
	진무				2									2
	품관	1												1
	학생									1				1
	호장				1									1
	합계	2	0	0	11	1	0	1	2	2	0	1	1	21

『군병도안』의 군수수술에 편성된 군병은 모두 118명으로, 이들 중 호적중 초 상에서 확인된 군병은 30명으로, 약 25%에 해당하는 군병들의 직역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당시 대정군수의 휘하에 있던 이들 군병의 직역을 살펴보면 使令, 戶長, 鎭撫 등이 다양한 직역을 가진 군병들로, 대부분 관청에 속하여 말단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사령의 경우 일종의 吏胥로서 使喚을 의미하는 낮은 직임이었으나, 호장의 경우는 향리층의 수장에 해당하는 직역으로서 『군병도안』에서 군수수술뿐만 아니라 교직생과 비교적 고역에 해당하는 방군에도 편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 병종에 편성된 군병들의 신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병도안』의 교직생에 편성된 군병을 살펴보면 총 66명 중 호적중초에서 직역이 확인된 군병은 21명으로 약 3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교직생에 속한 군병들의 직역은 교생을 비롯하여 진무, 작리 등으로 확인되며, 특이할 만 점은 이들 가운데 ‘官奴’가 1명 편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군병도안』 내 교직생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동성리 마을에 등장하는, 관노 직역을 가진 군병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노비의 경우 관아가 있었던 대정현성내의 동성리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분이 관노였던 군병은 『군병도안』 내에서도 교직생에 편제되어 ‘肉庫子’의 직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육고자는 ‘肉庫’에 속하여 관청에 육류를 바치던 관노로서 그 신분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군병도안』의 각 병종별 편성에 따라 호적중초상에서 확인된 군병들의 직역 실태를 살펴보면, 속오군에 소속된 군병은 655명으로 이들 중 호적중초상에서 확인된 군병은 250명에 달하고, 성정군은 총 337명 중 112명의 직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대의 경우는 262명 중 76명, 봉·연군은 218명 중 71명, 모슬·차귀진 방군은 244명 가운데 71명의 직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군수수술은 118명 가운데 30명을, 교직생의 경우는 66명 가운데 21명의 군병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장, 파충, 천총과 같은 군관 직역이 각 병종별로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 가운데 호적중초상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직역은 품관, 가솔, 천총의 순으로 이들 직역을 지닌 군병들은 12개 마을 중 영락리를 제외한 11개 마을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군병은 『군병도안』에서도 속오군과 봉·연군에 가장 많이 편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유학, 장의와 같은 양반신분의 직역을 지닌 군병은 대부분 『군병도안』에서 성정군에 편제되어 있었고, 사계리와 하원리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사계리에 대정향교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학류의 양반신분층이 많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군병도안』의 성정군을 비롯하여 모슬·차귀진방군 등에서 유학이

나 장의, 교생과 같이 양반 신분에 속하는 직역을 지닌 군병이 확인되고, 교직생에 편성되어 있는 천민 신분인 관노비의 기재 사례를 확인하였다.

4.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19세기를 전후하여 제주 지방군제의 개편에 따른 제주지역 지방군의 편성과 그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1870년 『대정군군병도안』의 지방군 편제양상과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또한 『군병도안』과 『호적자료』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지방군에 편성된 군병들의 직역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 편제의 한 단면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병도안』 자료를 활용하여 조선사회에서 군적이 갖는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군병도안』에 편성된 군병들의 각 병종별 편제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주에 남아 있는 자료 가운데 1870년(고종 7)에 작성된 『군병도안』에는 조선후기 제주지방의 주요 병종인 마대, 속오군, 아병, 성정군, 군수수술 등의 편제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의 군액은 총 1,900명에 달하였다. 이처럼 군적은 당시 군병들의 소속과 신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자료로서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1870년 『군병도안』이 시기에 해당하는 호적중초 자료와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당시 군적에 기재된 군병들이 각 마을별 호적중초에는 어떠한 직역으로 기재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군적에 기재된 1,900명의 군병 중 분석대상으로 삼은 대정현 12개 마을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군병은 총 970명이었고, 이 가운데에서도 12개 각 마을별 호적중초에서 그들 군병의 직역이 확인된 수는 598명으로 약 62%에 해당하였다. 이들은 가솔, 천총 등과 같은 군관 직역은 물론이고 유학, 유향별감 등 직역을 지닌, 신분상으로는 상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군병도안』에 각 병종별로 분포하고 있다. 이

는 제주지역이 신분적 차등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에서 노비에 이르는 제주지역의 사람들이 당시 군역을 지니고 각 군에 고르게 편제되어 제주지역 지방군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 살펴 본 바와 같이 19세기 제주지역 지방군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속오군, 마대를 비롯한 각 병종별로 편제된 군병들은 군관 직역을 비롯하여 유학류와 노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역을 지니고 있어 당시 사회 전반적인 상황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신분 직역의 상향 이동을 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군병도안』과 호적중초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부분 모록·모칭의 결과로 하층민의 경우 비교적 낮은 계층이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봉·연군 또는 방군 등에 편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역을 살펴보면 보다 높은 상층의 직역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라는 특정한 지역의 군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그 일차적인 사료라 할 수 있는 『군병도안』과 호적중초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지방군의 실태를 살펴보는 데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군병 가계의 실상을 파악 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 이에 향후 사료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보완을 통해 19세기 제주지역의 지방군에 편성된 군병의 신분적 지위와 결부하여 다각적으로 그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대정군군병도안(大靜郡軍兵都案)』
 『제주계록(濟州啓錄)』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烽臺總錄)』
 『제주속오군적부(濟州束伍軍籍簿)』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탐라영사례(耽羅營事例)』
 『각사등록(各司謄錄)』
 김석익, 『탐라기년(耽羅紀年)』
 이원조, 『탐라록(耽羅錄)』
 ———,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이원진, 『탐라지(耽羅志)』
 ———,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제주대정현대포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大浦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덕수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德修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도순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道順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동성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東城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사계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월평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月坪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일과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日果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중문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中文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하모슬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下幕瑟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하원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河源里戶籍中草)』
 『제주대정현회수리호적중초(濟州大靜縣廻水里戶籍中草)』

2. 저서

- 고찬화 · 김천형 공편, 『濟州의 近世史 - 朝鮮王朝實錄』, 성민출판사, 2002.
 고창석 외,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1.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1970.
 부만근, 『제주지방행정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서태원, 『朝鮮後期 地方軍制 研究』, 해안, 1999.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7.

이원진 씬·김찬흠 외 옮김,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濟州東伍軍籍簿』,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1.

제주도지편집위원회, 『濟州道誌』 제2권, 제주도, 2006.

최형국, 『조선무사』, 인물과 사상사, 2009.

최효식, 『朝鮮後期 軍制史研究』, 신서원, 1995.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지리지총서『邑誌』 6 제주도, 서울아세아문화사, 1983.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정 유형문화재 역해) 향토문화교육자료집』, 2011.

3. 연구논저

강성문, 『조선시대 도검의 군사적 운용』, 『고문화』 60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2.

권인혁, 『資料解題: <耽羅營事例>』, 『제주도사연구』 제5집, 제주도사연구회, 1996.

김동전,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_____, 『18・19세기 番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역사민속학』 제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_____, 『<大靜郡軍兵都案>解題』, 『濟州東伍軍籍簿』,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1.

_____, 『朝鮮後期 濟州地域 戶籍中草의 實態와 그 性格』, 『역사민속학』 제20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김상옥,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 - 牙兵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_____, 『朝鮮後期 濟州地方의 軍事制度』,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김우철, 『17세기 후반 濟州 東伍軍의 編成 實態 - 《濟州東伍軍籍簿》의 분석 -』, 『한국사 연구』 132호, 한국사연구회, 2006.

서태원, 『朝鮮後期 地方軍 運用과 營將制』, 『동서사학』 제6・7합본집, 한국동서사학회, 2000.

송양섭, 『18・19세기 단성현의 군역 파악과 운영』,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이준구, 『朝鮮後期の <業儒・業武>와 그 地位』, 『진단학보』 60권, 진단학회, 1985.

이현수, 『조선말기의 군적 - 육군박물관 소장 군적문서의 분석 -』, 『학예지』 3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3.

임승희, 『조선후기 제주 지역 지방군의 편제와 실태』,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전경목, 『조선후기 品官과 그들의 생활상』, 『인문콘텐츠』 창간호, 인문콘텐츠학회, 2003.

_____, 『조선후기의 교생』, 『고문서연구』 제33호, 고문서학회, 2008.

정수환, 『19세기 假率의 성격과 濟州社會』, 『제주도연구』 제23집, 사단법인 제주학회, 2003.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제2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허원영, 『19세기 제주도의 호구와 부세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The Working Conditions of Soldiers Stationed in the Daejeonggun Region of Jeju in the Late 19th Century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Revision of Census Registers and Daejeonggun Gunbyeongdoan –

Lim, Seung-Hee

The paper aims to review the formation of the local forces in the Jeju region and the troop disposition, at different times, after the military reorganization took place during the period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tudy also examines the local military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by reviewing one of the remaining Jeju's cultural assets, 'Daejeonggun Gunbyeongdoan(大靜郡軍兵都案)', the military register of the Dajeong magistracy in 1870. A comparative analysis is performed between the data from the military register and another available historic record of census register of the time, 'Hojeokjungcho(戶籍中草)'. The study intends to revisit and show how the local military force was formed. A comparative analysis will provide a fresh point of view.

The 'Daejeong Gunbyeongdoan' military register made in Jeju in 1870 is a valuable document that clearly records the data on the soldiers, to include their military positions and identifications. From such important records, it is very significant to be able to find out how the local forces were formed and what conditions the forces were exposed facing. According to the register, the types of soldiers assigned to the local forces in Jeju were 'Madae(馬隊)'

mounted unit, ‘Sogogun(束伍軍)’ general local soldiers, ‘Seongjeonggun(城丁軍)’ castle defending soldiers, ‘Gunsususol(郡守隨率)’ logistics, ‘Bonggun(烽軍)’ soldiers in charge of the beacon mounds, and ‘Yeongun(煙軍)’ smoke signal soldiers. The force totaled 1,900 soldiers.

As noticed, the ‘Daejeong Gunbyeongdoan’ military register was written in 1870 and the ‘Hojeokjungcho’ census register was made around the same time. It should be safe to assume that the two records are related. Accordingly, the records of the soldiers on the military register were compared with the ones in the census register to find out what kinds of occupations they had prior to military assignment. The 970 soldiers whose residents were from the 12 villages of the Daejeong magistrate, out of the total of 1,900 registered soldiers, are studied in this paper. Among the 970 soldiers, 598 or 62% of them had a confirmed occupation matching the census register of the 12 villages.

The type of the soldiers’ occupations varied depending on the soldier’s military position, such as, ‘Gasol(假率)’ border patrol special officer, ‘Cheonjong(千摠)’ high commissioned military officer, to ‘Yuhak(幼學)’ gentry of higher social status, ‘Yuhyang-byeolgan(留鄉別監)’ and ‘Pungwan(品官)’ government officer positions. They were the main manpower to form the local military forces in the Jeju region.

Key words : Daejeonggun Gunbyeongdoan(大靜郡軍兵都案),
 Hojeokjungcho(戶籍中草), Seongjeonggun(城丁軍),
 Sogogun(束伍軍), Madae(馬隊), Jilyok(職役), Soldiers(軍兵)